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조성윤*

< 차례 >

- I. 머리말
- II. 제주의 해양문화 전통과 단절의 역사
- III.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전통의 수동적 회복
- IV. 해방 후 자본주의화와 해양문화의 약화
- V. 맺는말 : 제주도 해양문화의 과제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해민을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규정한다. 물론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 바다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해안이나 섬에 살면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거두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해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글은 제주도 주민들이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바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꾸려왔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제주도민들이 과연 해민으로 살았느냐를 물어 볼 것이다. 대답은 한 때 해민으로 살아온 적은 있지만, 한반도의 정권에 지배당하고, 보다 큰 국가의 일부가 된 다음부터 해민으로서의 전통은 사라졌고, 바다를 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지 중심으로, 섬 주민도 땅을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런 점에서 나는 탐라국 시절부터 제주도민들이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독자적으로 발달시키고 키워왔던 해양 문화가 조선시대 국가 정책에 의해 단절되고 축소 왜곡되어왔으며,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해민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섬 안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海民으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구조 속에서 제주도의 해양 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이 바다와 가까워질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물론 문화유산으로서의 해녀(潛嫂)문화, 이어도에 대한 영토적 관심 등으로 해양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주관적 느낌에 불과하며, 어업에 대한 관심, 바다를 느끼고 사랑하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만드는 문화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장기적인 해양문화정책의 방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제주도, 해양문화, 해민, 탐라

I. 머리말

2012년 6월 29일 여수 해양 엑스포 현장에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실이 일본 큐슈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는 “海民(Kaimin) 프로젝트-바다로 이어지는 지역, 사람 그리고 미래”였다. 시의적절한 주제였고, 제주대학교가 바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와 일본 해양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큐슈대학과 두 번째 합동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처럼 앞으로 일본학자들과 만나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아직 하지 못하면서 지나갔다. 그 중심에는 해민(海民)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학술대회 이전에 ‘해민이란 누구를 가리키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한국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까’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해민은 한국학자들보다, 일본 학자들이 더 자주 사용해온 개념이다.¹⁾ 이번에 탐라문화연구소가 “海民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택한 것은 일본측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제주, 나아가 한국의 해양문화를 연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나중에 미루려고 한다. 이 글에서 나는 해민을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것이다. 물론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 바다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싫건 좋건 상관없이, 바다에 가까운 해안이나 섬에 살면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거두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해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주민들이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바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꾸려왔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제주도민들이 과연 해민으로 살았느냐를 물어 볼 것이다. 대답은 한 때 해민으로 살아온 적은 있지만, 한반도의 정권에 지배당하고, 보다 큰 국가의 일부가 된 다음부터 해민으로서의 전통은 사라졌고, 바다를 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지 중심으로, 섬 주민도 땅을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런 점에서 나는 탐라국 시절부터 제주도민들이 독자적

1) 그 중 대표적인 학자는 아미노 요시히코이다. 그의 해민 개념과 이론은 다음을 참고하라. 아미노 요시히코(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42-58쪽.

으로 발달시키고 키워왔던 해양 문화가 조선시대 국가 정책에 의해 단절되고 축소 왜곡되어왔으며,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해민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섬 안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海民으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구조 속에서 제주도의 해양 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이 바다와 가까워질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물론 문화유산으로서의 해녀(潛女)문화, 이어도에 대한 영토적 관심 등으로 해양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주관적 느낌에 불과하며, 어업에 대한 관심, 바다를 느끼고 사랑하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만드는 문화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장기적인 해양문화정책의 방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주인들의 해양문화 전통을 정리하고, 제주인들이 자신들의 해양문화 전통을 어떤 방향으로 계승해 가야 할 것인지를 짚어볼 것이다.

II. 제주의 해양문화 전통과 단절의 역사

먼저 탐라국 시절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와 어떤 관련을 맺고 살아왔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탐라의 정치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제주도 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탐라국이 어떤 성격의 국가였는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국가(State)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고 종족 공동체 수준을 넘어서

서 지배 조직이 갖추어지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탐라국을 고구려·백제·신라와 대등한 수준의 국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록 사회발전단계가 고구려·신라·백제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정치체제였다는 점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전경수, 1987; 박원실, 1993; 진영일, 1993). 제주도가 국가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장사회(Chieftdom Society)라고 부르기도 한다(진영일, 2008: 33쪽). 여기서는 일단 海民으로서의 제주도민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탐라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1105년(고려 숙종 10년) 탐라군(耽羅郡)이 설치되면서 막을 내렸다(진영일, 2008: 33쪽)는 점은 밝혀져 있다. 따라서 탐라국은 적어도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를 거쳐, 통일신라 시기, 그리고 고려 전기 내내 한반도의 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탐라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었는가. 이 시기에 관한 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중국문헌과 국내문헌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그 밖의 몇 가지 문헌 자료가 있다. 기록들이 단편적이지만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다. 이들 자료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탐라와 다른 지역 국가들의 교류를 보여주는 기록을 보면, 다른 지역의 배들이 탐라는 찾아와서 교류한 경우는 드물었다.²⁾ 그보다는 탐라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백제·신라는 물론, 일본·중국의 여러 지

2) 『高麗史』 卷第23, 世家 第23 高宗 31年(1244) 2月. “전제주부사 노효정과 판관 이각은 제주에 있을 때 일본 상선이 자기 경내에서 폭풍으로 파선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단, 은, 주옥 등 재물로 사복을 채웠습니다.”

『高麗史』 卷第25, 世家 第25 元宗 元年 2月 경자일. “제주는 해외의 큰 진(巨鎭)이며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무시로 왕래하는 곳이니”

역을 찾아가서 교류했었다. 그리고 백제·신라, 고려의 관리가 배를 몰고 찾아와서 특산물을 거두어 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백제·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은 수십 차례 보인다. 또 여러 차례 탐라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표류하여 일본과 중국으로 떠내려갔던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³⁾

제주 사람들은 배를 직접 건조해서 이것을 타고 다른 지역을 찾아가 교류하고, 물건을 사고팔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주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했고, 상당히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배를 직접 건조하고, 항해하는 기술도 축적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김일우, 2004: 73쪽). 탐라국 주민들은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상업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교역을 할 때 조개류, 전복 등의 해산물을 비롯한 각종 특산물을 내다 팔고, 식량과 각종 생활 도구들을 사들였다. 결국 제주도민들은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지닌 데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목재도 풍부했고, 건조 능력도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12년(고려 현종 3) 8월에 “탐라사람들이 와서 큰 배 두 척을 바쳤다(耽羅人來 獻大船二艘)”는 기록이 있다.⁴⁾ 탐라사람들이 배를 바친 행위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록했다면, 기록에 나오는 큰 배는 상당히 규모가 컸을 것이다. 물론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배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연안에서 사용하는 배가 아닌 먼 거리의 항해가 가능한 선박일 것이다. 탐라사람들이 이 배를

3) 1029년(현종 20)과 1078년(문종 32)에는 일본으로 표류해 간 탐라사람이, 1099년(숙종 1)에는 송나라로 표류해 간 탐라사람이 각각 송환되어 왔다.

4) 『高麗史』 卷第1 世家 第4 顯宗 壬子 3年(1012) 8月 壬寅日.

개성까지 몰고 가서 바친 것이다. 이런 배 2척을 선물로 바칠 정도면 배를 건조하는 능력이 이미 고려조정에 알려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려고 준비할 때, 제주에서 새로 배를 만들어 출정하게 하였다. 당시 배를 3천척을 짓도록 했다는데, 이 배를 모두 제주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상당수의 배를 건조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⁵⁾ 그리고 제2차 일본정벌을 준비할 때는 배 3천척의 건조 분량의 재목을 탐라에서 공급하게 하는 동시에, 고려의 반역자로 원나라 군대의 책임자가 된 홍다구에게는 일본 정벌용으로 탐라에서 새로 건조한 배를 특별히 주었다. 또한 탐라에 전함 수리소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한다(김일우, 2000: 271쪽).

결국 일본정벌도 끝나고 탐라는 몽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몽골 지배 기간 동안 몽골의 말 기르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제주도 산업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몽골은 제주에서 낙타 양 등 여러 가축을 갖고 들어와 길러보았다. 그 가운데 중점은 역시 말에 두고 있었다. 말을 정기적으로 원나라에 공납하였다. 그런데 한꺼번에 4~5백 필의 말을 원나라로 가져갔다고 한다(김일우, 2000: 296-298쪽). 그렇다면 말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 한반도 남단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부터 한반도를 횡단해서 요동으로 갔을까. 아닐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제주의 선박을 이용해서, 제주의 선원들을 동원해서 이동시켰을 것이다.

5) 『高麗史』 卷第26, 世家 元宗 9年 10月 경인. …조서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 군대 1,000명을 갖추었고 선박 1,000척을 만들게 하였다고 보고한 일에 대하여 … 이제 군대를 사열하며 함선들을 검열하도록 하는 바이니 건조하는 배들은 여기서 보내는 관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만들 것이다. 탐라에 이미 선박 건조의 일을 맡기었다면 반드시 또 더 첨가하여 부담을 지을 필요는 없으나, 만일 아직도 선박 건조의 과업을 주지 않았다면 즉시 따로 100척을 짓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럴 경우 제주인들은 중국 지방까지의 장거리를 이룬바 큰 배를 이용해서 왕래했을 것이며, 일본, 중국을 왕래하며 다졌던 항해술을 충분히 발휘했을 것이다.

조선시대로 들어서서 군현제도와 조세수취체계가 정비되면서, 제주도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특산물을 거두어가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조선시대에는 각종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진상 체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말을 기르기 위한 국영목장 체제도 정비하고, 토착 세력을 순화시켜 조선의 양반 지배체제로 끌어 들였다.

이 시기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도에 도망 나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을 흔히 포작인(鮑作人)이라 불렀다. 포작인이란 이른바 출륙제주도민(出陸濟州島民), 즉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벗어나 주로 전라도·경상도 바닷가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살던 제주도민을 가리킨다(韓榮國, 1981: 809쪽). 포작인이라는 명칭 말고도, 포작한(鮑作漢), 두독야지(豆秃也地), 두무악(頭無岳), 두모악(豆毛岳)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두무악, 두모악이라는 명칭은 한라산을 가리키는 명칭을 따서 제주도 사람들을 부른 데서 연유한다.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탈출한 제주도민들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해안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상당수는 다도해의 여러 섬에 정착하였다. 성종은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秃也只)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 천여 인이라”고 하였고, 또 “제주(濟州) 사람들 2백여 명이 사천(泗川)에 와서 사는데, 제주(濟州)의 「두독야(豆秃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드나들더니, 이제는 32척으로 늘어났으며, 강기

습에 의지하여 노막(蘆幕: 갈대로 엮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한다.”는 기록도 보인다.⁶⁾

1485년(성종 16)에 경상도 관찰사가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포작인들을 조사해 바치자, 중앙의 관리들이 의논하면서 “이 무리들은 모두 제주에서 도망쳐 왔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집이 없이 처자를 거느리고 배 위에서 기생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도에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육지 연안 지방으로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없는 자로서, 일부는 수적(水賊)으로 활동하여 정부의 골치 거리가 되고 있었다.

육지에 정착한 제주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는 알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성종 대에 수천 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앞에서 각사 노비가 1만 명에 가깝다고 한 것을 미루어 적어도 2만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자, 중앙 정부는 전라도 경상도로 하여금 포작인들의 현황을 조사시키고, 이들을 붙잡아 제주도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지방 수령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별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방의 수령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작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은 결코 막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들로부터 각종 조세를 거두어들이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들이 고기잡이는 물론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

6) 『成宗實錄』 권145 成宗 13年 8月 戊寅.

면 많은 양의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머물기를 바라기까지 하였다(조성운, 2005: 58-59쪽).

제주도로의 강제 쇄환(刷還)이 쉽지 않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자들은 놓아두고 도망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을 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포작인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 하여금 배에 자호(字號)로 표(標)를 붙이고, 바다에 나갈 때는 증명서인 노인(路引)을 주도록 하여 통제하고, 만일 노인이 없거나 혹은 표가 없는 배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하면 처벌함으로써, 다른 곳으로의 유량을 막고 정착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안 지방에 정착하게 된 포작인들은 언어와 풍속이 달랐고, 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끼리 바닷가에 마을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韓榮國, 1981: 816쪽).

제주도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인조 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을 내렸다. 즉 모든 제주민들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육지 나들이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1629년(인조 7)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은 약 200여 년 간 계속되다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풀리게 된다. 출륙금지령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주도의 인구는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았고, 호수와 인구수가 18, 19세기에 걸쳐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조성운, 2005: 63쪽).

제주도민들이 도망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의 경작지 부족과 척박한 농업 사정 때문에 주기적으로 닥치는 흉년의 식량난을 견디기 힘들다는 점과, 제주도민들의 경제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관의 각종 부역과 진상품 요구와 지방 토호와 관리들의 횡포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

하는 것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책을 쓰는 쪽으로 정책이 집행된 것이다.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를 조선 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제주도민들을 물로 사방이 막힌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게 된 하층민들로서는 엄청난 부역과 진상품 마련에 끊임없이 동원되는 한편, 지방 토호들과 관리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주도민들은 기회만 닿으면 제주도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엄격한 감시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었지만, 육지 다른 지방의 문화와의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날 언어와 무속을 비롯한 민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출륙금지령이 제주사람들을 섬 안에만 묶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주사람들이 바다를 무대로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내내 계속된 국가정책 때문에 더 이상 제주 사람들은 배타는 것이 불가능했다. 바다와 멀어진 것이다. 200년 이상의 단절이 제주사람들의 해민으로서의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다.

Ⅲ.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전통의 수동적 회복

개항 이후에는 일본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와 어획을 시작하

였다. 일본 배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상태에 있었다. 당시 상황을 박구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삼치는 魚群이 수십 리에 달하는 것이 있었고, 강원도 연해에서는 地引網으로 1망에 3,4천미를 잡는 일도 있었다. 동해안의 방어는 地引網 1회 사용으로 3,4천미를 어획하는 수가 있었고, 過多漁業으로 어망이 대파된 일도 있었다. 고등어는 一本釣로써 어선 한 척이 하루 밤에 4,5천미를 낚는 수가 있었다. 서해안 席島 근처에 출어한 일본인의 상어 延繩에는 50개의 釣針 중 40개 이상에 상어가 물릴 때가 있었고, 때로는 연승이 끊어져 유실되는 일도 있어 어부들은 적게 물리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다랭이류의 자원도 풍부하여 강원도에서는 수천미가 어획되기도 하였다.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 자원도 극히 풍부하여 강원도에서는 참다랭이 대군이 내유할 때면, 地引網 1망에 수천미가 어획되기도 하였다.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 자원도 극히 풍부하여 潛水器船 어부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박구병, 1981: 293).

풍부한 어족자원을 본 일본 어민들은 계절적으로 어군을 따라 수백 척씩 몰려오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남해안과 제주도를 찾아와 거주하면서 어획을 시작하였다. 선진 어업기술을 갖춘 일본 어민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제주 바다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 어민들은 낚시어업 연승어업, 어망 어로 이외에도 새로 도입된 잠수기(潛水器) 어업까지 동원하였다. 1879년부터 시작한 잠수기 어업은 가파도, 비양도 등을 근거지로 조업하여 해안의 소라, 전복, 해삼, 해초를 거두어들였다(姜萬生, 1986: 105쪽).

제주도 주민들은 일본 어민들의 적극적인 침투에 대항할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일본 어민들의 침투를 지켜보던 제주도 어민들은 여전히

대부분 태우를 이용한 조업을 하였지만, 조금씩 신식 어구와 어망을 새로 구입하고, 선진 어업기술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하였다. 1900년을 전후해서는 수십 명이 계(契)를 조직해 공동으로 그물과 어선을 구입하고 직접 어로에 종사하기 시작했으며, 1908년에 상어를 잡는 그물인 자망(刺網)이 85統으로 늘어났다(姜萬生, 1986: 131-2쪽).

1910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본격화 하면서 일본인들은 제주도를 수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고 적극 진출하였다. 어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은 좋은 배와 발달한 어로 기술, 그리고 잠수기선(潛水器船)을 바탕으로 제주 바다의 풍요로운 어장을 휩쓸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어획물을 일본이나 육지로 반출하기 위한 처리 공장들을 세웠다. 그들은 조천·함덕·월정(月汀)·행원(杏源)·성산·서귀포·모슬포 등 포구에 주로 모여 살았다. 일주도로는 비포장의 3등 도로였지만, 제주의 각종 생산물을 산지·한림·성산포·서귀포 등의 포구로 수송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경찰관 주재소, 등기소, 우편소, 학교 등을 세웠다(조성운, 2001). 이러한 해안 마을의 발달은 일본인들의 정책과 산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 마을 주민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도 큰 몫을 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어업활동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해녀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조선시대의 중심지였던 대정과 정의를 비롯한 중산간 마을은 서서히 쇠퇴한 반면, 해안 마을은 수산업의 발달과 해안 마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수립한 일제의 정책에 의해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새로운 마을이 출현하는 등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새롭게 중심지가 되면서 발전한 해안 마을 사람들은 경제력도 커지고, 관청 일을 보려면 자신들의 마을까지 내려와야 하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웃드르 맨주기’라고 부르면서 놀리기 시작하였다. 과거 ‘보재기 마을’ 사람들이라고 천대하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되갚음이었다. 해방을 맞이한 뒤 곧바로 터진 4·3 때문에 많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 이때도 해안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뒤 1954년 이후 많은 마을이 복구되었지만 그 옛날의 위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으며, 결국 오늘날까지 대부분 해안 마을이 각 지역의 중심 마을로 역할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조성운, 2001).

한말과 일제침략기 내내 한국사회는 제국 일본의 지배하에 식민지로 있었다. 이런 상황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치욕적인 일이었다. 일본은 한반도와 제주도를 자신들이 영원히 지배할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했다. 제주도에선 주로 일본 어민들이 들어와 살았다. 풍부한 어족 자원이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통조림공장, 단추공장 등 각종 관련 산업도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 남자들은 선원으로 일본인 배에 고용되고, 여자들은 잠녀(海女)로서 물질을 하여 전복, 해삼, 성게, 각종 해초류를 거두어들였다. 일제는 어업조합을 조직해서 이들이 생산하는 해산물을 모두 상품화했다.

제주사람들은 조선시대 내내 지나친 조세수취와 학정에 시달리다 못해 일부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 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출륙금지령에 묶여 살았다. 조선왕조가 행사하는 국가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일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제는 제주 사람들을 자신들의 생산 도구로 사용하였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일본 선주 밑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물질을 하는 장기계약에 고용되면서 끝없는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 그러나 일제 지배 하에서 제주 사람들은 조금씩 해양을 무대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으며, 이런 경험이 제주도민

들의 단절되었던 해양문화 전통을 다시 되살리기 시작했다.

제주 여자들은 부산, 경남 일대는 물론,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심지어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물질을 나갔다.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여러 곳으로도 나갔다. 여자들이 이렇게 전국으로, 일본으로 물질을 나가면서, 남자들이 선원이 되어 배를 타면서 제주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갔다. 제주도 주민들이 일본인 어부들의 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활동을 통해 상당한 학습을 하게 되었다.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는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이 해방 후 한국 어업의 근간을 이룬다.

IV. 해방 후 자본주의화와 해양문화의 약화

해방 후 한국사회는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었다. 정부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는데, 그 때부터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몰고 왔다. 농업 중심의 사회구조가 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바뀌면서 농민은 크게 줄어들고, 노동자가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게다가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특화산업으로 감귤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수산개발계획도 수립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제주도 개발정책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제주도 개발정책은 국가 주도로 대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사회 전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해방

이후 제주도의 역사는 그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본격적인 지역 개발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의 모습을 전과는 아주 다르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제성장은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농업과 관광산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감귤산업을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관광산업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다(조성윤, 2003).

제주를 살린 산업은 농업이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기후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감귤이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감귤은 공급 과잉, 무역 자유화 추세 속에서 점차 하향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자 도지사들은 관광 개발 선언하였고, 제주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목축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목장지대는 대기업들에게 팔려 나가고, 목축업은 무관심 속에 실패를 거듭하다, 목장이 대부분 골프장으로 바뀌는 운명을 맞았다.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수산업은 더욱 관심 밖이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제주도는 체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수산업 정책을 수립해 본 적이 없다(조성윤, 1995: 79쪽).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제주도 수산업의 상징은 잠녀(해녀)다. 그런데 잠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어촌계 잠수회원 중에서 주축은 60대이다. 70대도 많고, 50대는 아주 적고, 40대 이하의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물질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창피해 하고, 아무도 자식에게 잠녀 일을 대물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잠녀들 자신만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제주도민들이 잠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긍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잠녀가 활동하는 모든 바다에는 마을 단위로 어장 범위를 정해 놓고, 입어권이라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주고 있다. 이것은 물론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잠녀들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일종의 소유권으로 인식되면서 마을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하여 심각한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고(金斗熙·金榮敦, 1982), 일반 제주도민들이 바다를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역할도 했다. 입어권이 없는 비조합원은 아예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연안의 바다는 제주도민 누구나의 바다가 아니라 어촌계 잠수회원들만의 바다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입어권이 최근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정 어촌계 잠수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강정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일이다. 해녀들로서는 날로 줄어들어가는 어족자원, 그리고 어획량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이도 50대 60대가 중심이고, 70대도 적지 않아 언제 물질을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로 물질을 넘겨줄 생각도 없었다. 물질 자체가 천한 직업이며, 하고 싶은 유망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게 하고, 다른 직종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마다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니, 그것을 받으면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목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질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들로서도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지가 들어서는데 대한 보상이 입어권(入漁權) 보상이라는 형태로 올 것을 생각하면서,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생각이 결여된 채, 자신들의 독점권을 기꺼이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잠녀를 제주의 대표적인 해양문화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 당국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잠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수산업 발전 계획 속에서 잠녀의 생업활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약 수산업 종사자로서의 잠녀는 사라져 가는 데, 그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존·지원할 것인지의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단지 문화유산으로만, 박제된 관광 상품처럼 잠녀를 취급한다면 이 것 역시 실패할 운명에 놓이고 말 것이다.

V. 맺는말 : 제주도 해양문화의 과제

오늘날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를 끼고 살면서도 전혀 바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사 속에서 다른 섬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의 길을 걸어왔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휘둘리면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오래 축적되면서 바다를 활동무대로 생각하는 해양문화도 사라졌다.

제주도 어민들은 탐라 시절부터 조선전기까지 바다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원양을 다닐 수 있는 '큰 배'로 제주도과 남해안 일대는 물론 일본과 중국 해안을 왕래하였다. 이런 활동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산물을 다른 지역에 내다 팔고, 다른 지역에서 식량과 기타 필수품들을 사들였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조선정부가 파견한 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온가족을 싣고 제주도를 떠났다. 전라도, 경상도의 남해안 일대에 정착한 유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한영국, 1981). 그러자 조선후기 들어서면서 제주도에는 아예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고 조선후기 내내 바다 활동이 금지 당했다. 제주사람들을 바다를 앞에 놓고도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조선정부의 정책은 제주도민을 바다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런 제주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던 것은 일본 어민들이었다. 일본 어민들이 볼 때 제주도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갖춘 '未開의寶庫'였다. 일본 어민들이 제주도와 한국 항구, 섬들을 무대로 배를 갖고 와서 아예 눌러 살면서 어업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하고, 잡녀들에게 바다 밑 채취활동을 하도록 장려했다. 바닷가 마을 출신 잡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물질에 뛰어들었고, 일본 어민들은 그녀들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

이렇게 형성된 제주도의 수산업 종사자들은 해방 후 제주도 수산업계의 주축을 이루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수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펴본 적은 없다. 한국민들 대부분이 역시 수산업이 아닌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내걸었고, 수산업 부문의 정부 정책도 섬 주민들의 수산업 활동을 육성, 발전시키기 보다는 원양 어업으로 나아갔다(김수희, 2010: 242쪽). 이런 변화가 심화되면서 섬의 경제는 점차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섬이 국경의 표지가 되면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일수록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해양 경계선 때문이다. 지난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각 국가 간의 경계선 획정 문제는 대부분 대륙 내에서 이루어졌다. 중국만 하더라도 몽골과 티베트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북조선과의 경계가 전에는 자주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별로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요즘은 그 분쟁이 바다로 이동하였다. 독도가 그렇고 제주도가 그렇다. 제주도가 아니라 마라도에 관심이 더 많고, 요즘은 아예 정식 섬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압초인 이어도(Sokotra Rock)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섬이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그로 인해 확보되는 바다의 넓이와 해저 자원의 부존량에 관심이 쏠릴 뿐, 정작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질수록 소수자 인권이 중요해지듯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섬에 사는 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추세는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광의 대상으로만 만들려고 한다. 오늘날 농업을 경쟁력 위주로 보는 관점이 수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자연과 같이 가는 사람들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는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가까운 미래에 지금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조금씩 낮아질 뿐이다. 이것은 제주도가 그나마 관광이 활발한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만약 제주 관광이 다른 요인 때문에 급속히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득 수준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때를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살 길은 농업·수산업·관광업의 균형 발전이다. 중심을 차지한 관광산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 가능한 길은

장기 휴양형 관광지로 가는 것이다. 기존의 농업을 살리고 수산업을 새로 살려 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민들을 해민으로 부활시키고, 바다와 가까운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업에 대한 관심, 바다를 느끼고 사랑하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만드는 문화를 재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姜萬生(1986),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 제3집, 제주도연구회.
- 고유봉(2011), 『제주도해양수산사』, 도서출판 각.
- 金斗熙·金榮敦(1982), 『海女漁場紛糾 調査研究(海女入漁慣行의 實態와 性格分析을 中心으로)』, 『논문집』 14집, 제주대학교.
- 김수희(2010),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 김일우(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도서출판 신서원.
- 김일우(2004), 『제주사람들의 海上活動과 그 유형(고려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제주해양포럼』 대한민국해양연맹.
- 김일우(2007),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No.23 한국중세사학회.
-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2002),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과 고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도서관화』 제20집.
- 박구명(1981), 『한반도 연근해 수산자원상태에 대한 사적연구』, 『經濟史學』 제5호, 경제사학회.
- 박원실(1993), 『탐라국의 형성·발전과정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愼鏞廈(2002), 『耽羅國 명칭의 起源에 관한 한 연구』, 『韓國學報』 28-2, 일지사.
- 아미노 요시히코(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 조성윤(1995),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 조성윤(2001), 『일주도로개설과 촌락의 중심이동』, 이야기 제주역사: 한말 일제하의 제주도 19, 제민일보 2001년 9월 3일자.
- 조성윤(2003), 『제주도 지역개발정책과 주민운동의 전망』, 제주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성찰과 방향』, 도서출판 각.
- 조성윤(2005),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耽羅文化』 제2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진영일(1993), 『고대 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4집, 제주도사

연구회.

秦榮一(1996),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
구소

진영일(2008),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韓榮國(1981), 「頭毛岳考」,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Abstract

Severance and Succession of Tradition in a Jeju Maritime Culture

Cho, Sung-Youn*

In this article, I simple define Hamin(海民) as the people living with the Sea. Of course we can us this concept to the people that enjoyed marine activities. But I want to use this concept as a narrow meaning that the people who living with fishing, gathering the ocean seaweed.

First, I will try to examine how Jeju Island inhabitants understand the sea and living with ocean resources as Hamin. Jeju people had been identified themselves as Hamin ? I want to explain that the Jeju people had lived on Hemin during the Tamla Kingdom period. But after accepted the rule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one time, and the tradition as Hemin disappeared in a bigger national part after. During 15~17century, Many Jeju people move their own nest from island to outside, And then most of the island inhabitants are engaged in agriculture not the maritime activities. And citizens of Jeju island had forgotten a characteristic as Hemin. This kind of tendency had been strengthen by 'the command of the prohibition about the going out islan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modern times begin, Jeju people had released from the prohibition and they begin to revitalize the marine activities. But at the same time Japanese fishermen have taken the initiative about the marine activities when the Empire of Japan which ruled. Recently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concern about the woman diver(潛嫂) culture as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interest of the territory such as Jeodo become increased. But marine culture of the Jeju people was not yet ripe. I think that we had to grope our way for the direction of long-term marine culture policy of the Jeju people positively.

Key Words

Jeju, Tamla, the Maritime Culture, Hamin(海民)

교신 : 조성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chomin@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2. 12. 22.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

